

민주 비대위원장에 4선 이상호

의총서 사실상 만장일치 동의
당내 신망 중립적 리더십 기대
이번주 내 당무위서 최종 추인

6·1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수습과 쇄신을 이끌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4선 중진 이상호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당내 인사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역 의원이 (낮다는 의견이) 좀 더 우세했다”며 “중진급의 중량감과, 우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선언을 한 만큼 중립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 등에서 전달력 있게 비대위원장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해서 의총에서 이견 없이 동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우 의원을 추천했고, 이에 의원들이 사실상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이후 분출하는 책임론 속에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당내 사정을 잘 아는 중진급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원은 당내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의 대표 주자로 꼽히지만 계파색이 짙지 않고 두루 신망이 높은 화합형으로 평가받는다.

당내 86그룹 중에서 가장 먼저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회의장당내 경선에 참여했다 김진표 의원에 패한 바 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전을 총지휘했다는 점에서 '대선에 책임 있는 인사가 대선 평가를 하는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옳으나'는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신 대변인은 “대선 이후 책임지고 곧바로 사퇴하시고 그간 (잠행하는) 생활을 하셨다”며 “당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중진의원으로서 치우치지 않는 분으로서 차기



장관 출신의 한정에 의원이 참여한다. 원외 인사로는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이 비대위에 포함됐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6명의 비대위가 꾸려진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이런 내용의 비대위 구성안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최종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구성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청년·여성 몫 비대위원은 추후 비대위 내에서 논의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매주 의총을 하면서 당에서 수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앞으로 어떻게 거둬낼지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부 구성이나 대선·지선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분”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원으로는 조선의원 대표로 이용우 의원, 재선 대표로 박재호 의원, 3선 대표로 환경부장관 출신의 한정에 의원이 참여한다. 원외 인사로는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이 비대위에 포함됐다.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해 총 6명의 비대위가 꾸려진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이런 내용의 비대위 구성안을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최종 추인을 받을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구성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청년·여성 몫 비대위원은 추후 비대위 내에서 논의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매주 의총을 하면서 당에서 수시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앞으로 어떻게 거둬낼지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주현 황준국 윤덕민 정재호 장호진 강석훈

윤 대통령,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주현 지명

‘4강 대사’ 인선 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주일 대사로,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를 주중 대사로, 장호진 한국해양대 석좌교수를 주러 대사로 각각 임명했다.

이로써 앞서 주미 대사로 임명된 조태용 전 의원을 포함해 새 정부 첫 ‘4강 대사’ 인선이 마무리됐다.

아울러 황준국 전 주영 대사는 주유엔 대사로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또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

국장을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으로, 허성우 전 인수위 행정실 부실장을 시민사회수석실 국민제안비서관으로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도 이날 공식 출범했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5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제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단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처 기획과장을 지내며 인사 행정 전문성을 쌓았다.

또 이날 신임 산업은행 회장으로 강석훈 신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전 대통령실 경제수석)가 내정됐다.

/연합뉴스

친윤그룹, ‘윤 정부 뒷받침’ 당권경쟁 시동

이준석 ‘정상납 의혹’ 신호탄

6·1 지방선거 승리 이후 국민의힘 내 차기 당권 주자들이 서서히 몸풀기에 나선 가운데, 친윤(친윤석열) 그룹에서도 당권 경쟁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당의 주류로 자리잡은 친윤 그룹 내 중진 의원들이 당내 민감한 현안에 대한 공개 발언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다.

특히 친윤 그룹은 공동으로 집권 초반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뒷받침’을 내세워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사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둘러싸고 ‘자기정치를 한다’는 공개 비판이 친윤 그룹에서 잇따라 터져 나온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당내 최다선으로 친윤 그룹의 ‘만행’ 격인 정진석 의원이 6일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행과 당 혁신위원회 출범을 통한 공천개혁 추진 등을 “자기정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작심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정 의원이 친윤 그룹을 대표해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선제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담회에서 이 대표에 대해 ‘쓴소리’를 하면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 “시거나 형식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했고, ‘이준석 혁신위’에 대해서도 “인적 구성과 아이템(의제) 등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좀 성급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친윤 그룹 내 핵심 인사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 대표의 정상납 의혹 징계 문제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여권 내 본격적인 파워게임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이낙연, 출국 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오늘 원내수석 회동...원구성 협상 시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다.

7일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8일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전화 통화를 갖고 이 같은 일정에 합의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진공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어 협상에 착수하더라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개혁이고 혁신”이라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분립 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며 “의정만큼은 정략적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그린알로에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